

2021년 12월 12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50편 23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322(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베드로후서 3장 1~9절(신약p.386)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3.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 말씀선포 /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

아를 가완디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책에서 '죽음'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노년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인간은 죽음을 미루는 데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다운 마무리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인생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말세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알 뿐 아니라 마지막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도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어야 합니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다. 분명 세상 많은 사람들도 말세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은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세 말단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성도는,

1. 재림을 의심하지 말고 굳건히 믿어야 합니다.

- 본문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본문 3~5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고 했는데,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돌아다니며 창조 이후에 세상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림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거짓이라는 가르침은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 지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고 권면한바 있습니다. 6~7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며 이에 대하여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것을 증거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재림과 심판에 대해 다른 복음을 가르칩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만 재림예수가 5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코로나19라는 혼란을 틈타 더욱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성도를 미혹합니다. 또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목적과 같이 우리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바르게 이해함으로 사탄의 미혹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결코 성도는 이단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2.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렸기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오시지 않자 재림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문 8~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으로 그들의 오해를 지적합니다. 이는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며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어리석은 것임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까지 참고 기다리신다고 교훈합니다. 이러한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과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까지만 알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지혜를 주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세말단의 이 시대에는 더욱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좋은 소리만 전할 것입니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다. 그렇기에 더욱 성도는 내가 이해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오직 믿음으로 붙들고 내가 듣고 싶은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지금 내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성도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 베드로의 가르침은 종말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와 사명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시는 것과 같이 성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약 120여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위에 120년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방주를 만드는 모습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노아와 그 가족이 만드는 방주를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말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7~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노아 방주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심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켜 멸망을 면하게 하시려는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 이단들과 미혹된 성도들에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남아 있음을 감사히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꾀계와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는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뜨거운 사랑과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고백과 같이 오직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주님의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끝까지 힘써 싸워야 합니다.

철학자이며 교육학자인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내일을 위해 현재의 삶이 중요함을 교훈합니다. 스피노자는 성도의 삶이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삶이라고 여겼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을 변함없이 감당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현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이 말세말단의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신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352(통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 폐 회 / 주기도문